

혁신도시 진입로 입체교차로 설치 '급물살'

특별교부세 20억 확보...전남도·나주시·시행사 의견 접근

LH "입체화 공사 적극 검토" ...빠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

출·퇴근시간 '지옥의 도로'로 악명 높은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진·출입로(광주일보 11월 5일자 1면) 입체화 교차로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평면교차로에서 입체교차로로 할 경우 91억원의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던 LH공사(혁신도시 시행사)가 입체화교차로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내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6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남도와 나주시, 시행사인 LH공사 관계자들이 혁신도시에서 만나 입체화 교차로 설치에 의견을 모으고

LH에서 추가 사업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LH공사는 전남도에서 공문 등 정식 절차를 밟아 추가 사업비 반영을 건의하면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입체교차로를 포함한 980m 4차선 도로 공사도 시행사가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남도는 최근 입체화 교차로 공사비로 특별교부세 20억원 확보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펼쳐 이번 협상의 물꼬를 텄다.

특히 국토부에서 승인해 준 나주 혁신도시 진출입로 사업기간이 올해 말까지라는 점도 LH와 전남도의 협상을 재촉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내년 초에 사업이 시작된다 해도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하면 오는 2017년 말경에나 교차로 사업이 완공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혁신도시 진출입 차량의 교통 정체는 불가피할 것

으로 보인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는 올해가 넘어가면 연초 각 기관의 인사이동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떤 형태로든 악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해 그 전에 명문화해야 한다는데 공동 의견을 모았다"면서 "부족한 사업비 문제도 내부적으로 해결이 된 만큼 빠른 완공으로 혁신도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출퇴근 시간 광주에서 국도 1호선을 거쳐 혁신도시로 진출입하는 운전자들은 금천교차로에서 산포 입구까지 심각한 차량정체에 시달리고 있다. 나주시는 해결책으로 국도 1호선과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북측 연결도로(나주 산포 매성리 일원)의 입체화교차로 신설을 주장했지만, 시행 3사는 입체화교차로는 91억원이 추가된 279억원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거부해 왔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kwangju.co.kr

허가 전담부서 운영 우수 나주시, 국무총리 표창



나주시는 최근 대전시 한국철도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2015 민원공무원의 날'에서 허가전담부서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나주시는 16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열린 '2015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허가전담부서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허가전담부서 운영을 통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으로 급증하는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시민들의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민원 만족도를 높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각종 인·허가 업무가 실·과·소별로 제각각 운영돼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직개편을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비롯한 각종 인·허가 업무를 건축과 부서 내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다.

김용욱 나주시 총무과장은 "민원인의 편의향상을 위해 단행한 조직개편이 긍정적인 성과를 낸데 이어 국무총리 표창까지 수상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기관도

나주 토요일문화 야시장 등 호평

나주시는 16일 "2015년 지역경제 활성화 전남도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올해 22개 시·군의 경제활성화 우수시책과 공공요금 등 물가관리, 소상공인 지원 등 7개분야 13개 지표를 정량평가 뒤 상위 우수 6개시·군에 대한 2차 평가를 거쳐 나주시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나주시는 나주 중심부에 있는 나주목사교을 시장의 '토요일문화 야시장 운영'과 나주시사랑상품권 129억원 판매 돌파, 원도심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운동 실천 등을 적극 추진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를 통해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과 거주민의 원도심 상권 이용률이 높아지는 효과도 냈다.

나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나주 중심가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신청을 통한 상권환경개선을 비롯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착한가격업소 발굴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사랑의 연탄으로 한겨울 따뜻하게

나주시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직원들은 지난 14일 나주 성북동에서 불우 이웃 24가구에 연탄 5000장을 배달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나주시 제공)



LG화학 나주공장, 장학금 1억5천만원 기탁

"지역인재 육성위해 써달라"

나주교육진흥재단에 전달

LG화학 나주공장이 지역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억5000만원을 나주교육진흥재단에 기탁하기로 했다.

LG화학 나주공장 민경호 공장장 겸 상무는 15일 나주시청에서 강인규 (나주시장)나주교육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올해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매년 3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의 인제

육성기금을 기탁하는 내용을 담은 장학금 기탁식을 가졌다.

민 공장장은 이날 기탁식에서 "이번 장학금 기탁으로 나주의 미래를 이끌 우수인재 육성과 참다운 교육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이 지역 후학들에



게 관심을 갖고 뜻 깊은 기탁을 해 주셔서 시민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러한 소중한 마음들이 지역 사회 전반으로 번져 있

내 인재육성기금 100억원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LG화학 나주공장은 지난 1993년부터 1997년까지 1억5000만원을 기탁했으며, 그동안 '희망 가득한 도서관'사업을 통해 도서관 선물 전달을 비롯한 미래 과학 꿈나무 양성을 위한 'LG화학 캠프'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또 지역민을 대상으로 도배봉사 및 연탄배달 등 나주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나주교육진흥재단에는 현재 73억 3000여만원의 기금이 조성됐으며, 중·고·대학 우수 신입생, 중·고 우수재학생, 초·중·고 예·체·기 능대회 장학생, 중·고 일반장학생(저소득층) 등 총 269명에게 30억 7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소촌동 모아드림아파트 | 온세계아파트 특별분양

교육, 교통, 생활편의까지
광주를 더 크게 누립니다!

41㎡ 53㎡ 80㎡ 104㎡ 107㎡

소촌동 모아드림 아파트 온세계 아파트

- KTX 5분거리
- 광주시청 10분거리
- 나주혁신도시 20분거리
- 무안공항 원할
- 교육환경 우수 지역
어룡초, 중앙초, 정광중 · 고등학교, 광주여대, 호남대 근거리

가격은 500만원대

풍부한 임대수요

우수한 교육환경

선착순 동, 호수지정

문의 062 383-6400